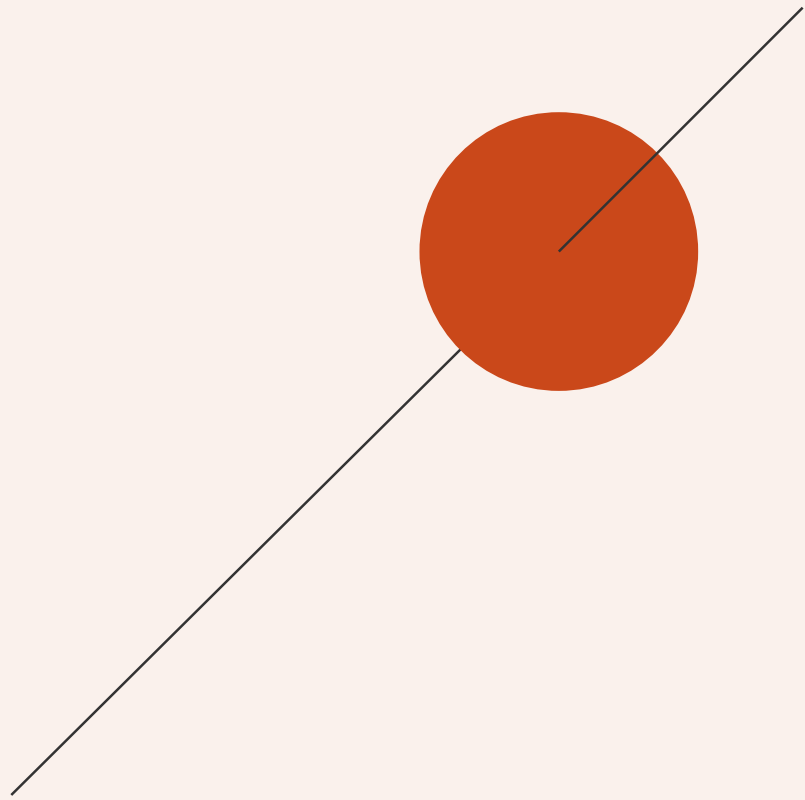


2026 여주문화원 상반기 「여주학 강좌」



2026년 상반기

여주문화원 인문학 아카데미



여주문화원 「여주학연구소」

2026 여주문화원 상반기 「여주학 강좌」

2026년 상반기
여주문화원 인문학 아카데미

목차

1강

「커먼즈 다시 그리기」

정영신 외 공저, 풀씨, 2024

강사: 정영신(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07

2강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김만권 번역, 책세상, 2025

강사: 김만권(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49

여주문화원 인문학 아카데미

2026년 상반기 진행 안내

지역사회 시민들의 미래 생존을 위협하는 지방소멸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균형발전을 지방이 ‘주도’하고, 지방분권을 지방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 · ‘역량이 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여주문화원 인문학 아카데미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성찰하고, 행동하고, 반성하는 능력을 증대시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의존적인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주의를 모색하는 주제로 도서를 선정하고, 저자(번역자)를 초청하여 강의와 토론을 기획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여주시민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참가 신청 안내

3월 9일(월) ~ 4월 10(금)

네이버폼 / 여주문화원 ☎ 031.883.3450

일시	도서	강사
4월 21일(화) 18:30	『커먼즈 다시 그리기』 정영신 외 공저 풀씨, 2024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월 19(화) 18:30~20:30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김만권 번역 책세상, 2025	김만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6월 23일(화) 18:30	『공화민주주의』 정원규 씨아이알, 2016 ① 공적 행복에 대하여	정원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6월 30일(화) 18:30	『공화민주주의』 정원규 씨아이알, 2016 ② 공적 행복에 대하여	정원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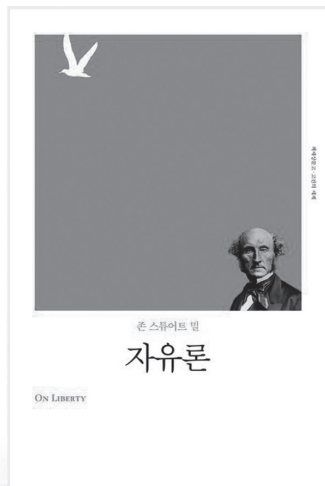
■ 도서 : 정영신 외 공저, 『커먼즈 다시 그리기』 (폴씨, 2024)

■ 강사 : 정영신 교수 /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강의일 : 4월 21일(화) 18:30

▶ 강사 소개

-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연구 영역 및 주제 : 평화와 커먼즈 연구자. 동아시아의 안보분업체제와 기지반대운동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하고 동아시아 각 국가와 지역에서 안보와 발전의 관계, 기후위기를 비롯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커먼즈를 통한 체제전환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대표 저술 :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투쟁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변화", "미군의 대한원조 영상 속에서 재건되는 전후 주체",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한국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커먼즈 규약 그리고 커먼즈의 정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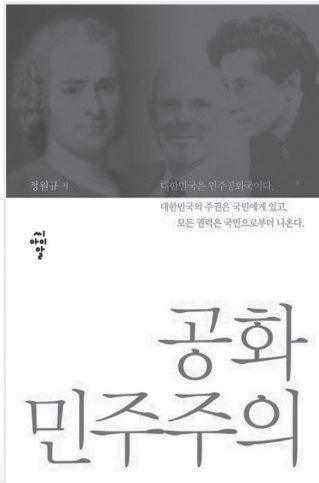
■ 도서 : 존 스튜어트 밀, 김만권 번역, 『자유론』 (책세상, 2025)

■ 강사 : 김만권 교수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강의일 : 5월 19(화) 18:30

▶ 강사 소개

- 김만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연구 영역 및 주제 : 정치이론 및 철학, 정치사상, 헌정이론, 분배이론 (기본소득 및 기초자본), 현대자유주의정치철학, 민주주의 이론 등
- 저서 : 『나와 지구 돌봄 혁명』(2025), 『외로움의 습격』(2023), 『새로운 가난이 온다』(2021),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2018), 『정치에 반하다』(2017), 『호모 저스티스』(2016), 『인민』(2015), 『불평등의 패러독스』(2004) 등
- 번역서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2025), (존 롤즈) 『만민법』(2017) 등
- EBS e-class '근대 정치철학사', '20세기 정치철학사' 등을 강의



- 도서 : 정원규, 『공화민주주의』 (씨아이알, 2016)
- 강사 : 정원규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강의일 : 6월 23일(화) 18:30 : 공화주의 1 _ 공적 행복에 대하여
6월 30일(화) 18:30 : 공화주의 2 _ 공적 자유에 대하여

▶ 강사 소개

- 정원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 (전) 한국윤리학회 회장
- 연구 영역 및 주제 : 사회철학, 사회윤리, 시민교육, 공화주의, 숙의/참여 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공화주의 헌법 해석, 민주공화국 등
- 저서 : 『공화민주주의』(2016), 『민주학교의 탄생』(2021),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논쟁하는 정치교과서 1, 2』(2015), 『논쟁하는 경제교과서』(2013) 등
- 논문 : 「공적 행복과 공적 자유를 통해서 본 공화주의의 이상과 우리 현실」(2023), 「정의, 평등, 공평과 구분 가능한 공정성의 의미 탐색」(2022), 「87년 헌법의 공화주의적 해석을 위한 정치철학적 검토」(2015)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thin black line that starts from the left edge of the page, extends diagonally upwards and to the right, passing through a dark gray circle. The circle contains the white Korean text '1강' (Lecture 1).

1강

「커먼즈 다시 그리기」

정영신 외 공저, 풀씨, 2024

강사 : 정영신(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6.04.21 여주문화원 발표

커먼즈 다시 그리기

정영신(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머리말’에서

§ 포럼의 기존 총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 수록된 글들 역시 다양한 이론적 현실적 맥락 속에서 작성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커먼즈(common)라는 언어를 자신이 터하고 있는 현실과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 속에서 사용하고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 한 해 동안의 공동의 논의와 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커먼즈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자유공동체는 불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우리 포럼을 구성하는 저자들 사이에서 관점과 방법론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 말걸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어찌 보면 이런 차이와 불화 속에서야말로 공동/공통적인 것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저자들의 공동 생산물로서 하나의 커먼즈라고 할 수 있으며, 독자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논쟁의 장이다. 이 논쟁의 과정은 표지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들이

생명자유공동체 총서

5

커먼즈
다시
그리기

정영신 구도와 김수진 김지혜 박순영
서지현 인세를 정우주 최영애 한상진 송덕화 지음
재단법인 '올과나눔' 기획



도시출판·물서

순서

- § 공유... 커먼즈와 비슷하지만 다른...
- § 커먼즈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
- § 왜 커먼즈와 커먼즈라는 말이 필요한가?
- § 커먼즈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복원)할 수 있을까?
- § 커먼즈 읽기를 위한 추천 서적들

‘공유’ 개념의 다의성

公有

共有

공유하다

국가의 소유
지자체의 소유

민간인들의 공동 소유

함께 이용하다
나누다

公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이란 바다(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 재산을 말한다.

共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유토지’란 한 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으로 등기된 토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중 ...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토지

민법

- 대한민국 민법은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 소유 항목에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를 규정하고 있음.

민법의 공동소유 규정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
인적 결합 형태	공동소유자간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개인적 소유	공동의 사업목적을 위해 다수가 결합한 조합의 소유	공동의 권리가 없는 사단의 소유
지분의 처분	각자의 소유 비율(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 동의 필요	지분 불인정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 가능	합유물의 사용은 조합의 계약이나 규약에 따름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사용 수익 가능, 양도 불가능
공유물의 분할청구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분할 청구 가능	합유물 분할 불가능. 조합체를 해산 시 가능.	분할 청구 불가능
공유물의 보존	각자 단독으로 가능	각자 단독으로 가능	사원총회 결의에 따름
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사원총회 결의에 따름

공유의 현대적 의미

법률적 용법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의 의미를 가져와 공유지, 공유재산 등으로 사용.
-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나 사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민간인 다수의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의미할 수도 있음.

사회적 용법

- 공유를 주로 '동사'적 형태로 사용하여 '공유하다'는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나누다", "함께 쓰다"는 의미로도 사용됨.
- 특히 디지털 정보를 함께 사용할 때 '공유하다'는 Sharing이나 Commoning의 의미를 지님

Sharing 과 commoning

Sharing

- Sharing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맥락에서 사용됨.
- 그러나 '공유경제'의 의미는 최초에 제안했던 개념과 이후에 유행 과정에서 이해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
- Sharing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
-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음.

Commoning

- Commoning은 영어인 Commons를 둘러싼 실천을 의미
- Commoning은 Commons의 구성 요소인 자원+공동체+제도(규칙)을 만들고 유지 및 재생산하는 실천활동
- Commoning은 소유권을 불문에 붙이고 함께 사용하는 것
- 자원의 저수지를 함께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일정량을 가져다 사용함.

공유경제=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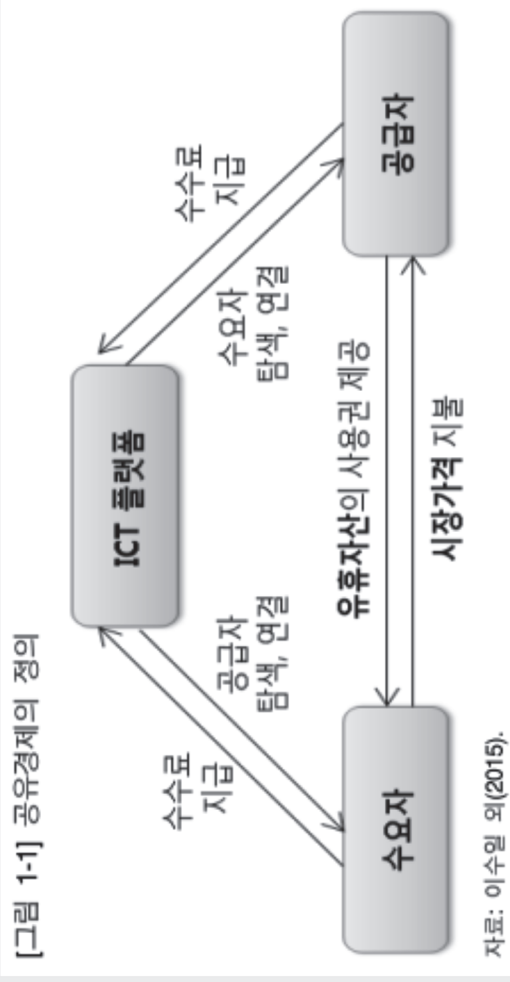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의해 유행한 경제 모델로서, 여기에서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Lessig, 2008). 원래 공유경제 개념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간에 관찰되는 교환의 형태로서, 화폐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유대감이나 자기 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 이것은 혈연이나 지역적 공동체 내의 호혜적인 선물 교환에서도 발견되지만,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 커먼즈 영역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개발 과정은 이윤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설정하여 지식을 구획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들의 창의적인 지식 생산과 협력,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는 대척점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Sharing Economy의 의미변화

=Platform Business?

- 후기의 공유경제는 초기의 의미와 크게 달라짐
- 후기의 공유경제란?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류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류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
-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순서

- § 공유... 커먼즈와 비슷하지만 다름...
- § **커먼즈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
- § 왜 커먼즈와 커먼즈라는 말이 필요한가?
- § 커먼즈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복원)할 수 있을까?
- § 커먼즈 읽기를 위한 추천 서적들

커먼즈를 정의하는 2가지 방식¹

- **요소론적 접근:** 커먼즈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의함으로써 커먼즈를 정의하는 방식
- 커먼즈는 자원: 커먼즈를 공유'지', 공유'자원', 공동'자원', 공동'자원' 등으로 부르고, 커먼즈를 특정한 성질을 가진 자원으로 이해하는 시각. 1) 자원을 열거하는 방식, 2) 자원을 범주화하는 방식(커먼즈는 배제성이 낮고 경합성이 큰 자원). [?] 국내의 주류적 시각.
- 커먼즈는 자원+제도: 커먼즈는 특정한 성격을 지닌 자원과 그것을 공동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지칭. 예컨대, 커먼즈는 배제가 어렵고 경합성이 높은 자원(common-pool resources, CPRs)과 공동체재산권이 결합된 것. *The Drama of the Commons*(2002). [?] 엘리너 오스트롬을 비롯한 제도주의 연구에서의 시각이며, 세계의 주류적 시각.
- 커먼즈는 자원+제도+공동체: 커먼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과 그것을 함께 이용관리하기 위한 제도 및 그것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연결된 하나의 체계(system). 데이비드 볼리어나 미셸 바우웬스 등 커먼즈 운동가들의 시각.
[?] 국내 비주류 연구자들의 시각.

커먼즈를 정의하는 2가지 방식¹

- 요소론적 접근의 장점: 요소론적 접근은 커먼즈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며, 커먼즈의 종류를 범주화 할 수 있게 해준다.
- 요소론적 접근의 단점: 그러나 커먼즈를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요소론적 접근은 커먼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커먼즈를 정의하는 2가지 방식2

- **관계론적 접근:** 커먼즈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니라, 그 요소들을 규정하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는 방식
-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하에서 상품의 생산, 즉 가치의 생산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며, 바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자체를 ‘자본’이라고 정의한다. 화폐, 토지, 기계 등의 생산 요소들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자본이 된다는 것.
- 마찬가지로 토지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토지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커먼즈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사회적 관계가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는가에 있다.
- 커먼즈적인 사회적 관계가 지배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공유화 활동(commoning)이 필요하다. 목초지는 협력적인 방목활동을 통해서 커먼즈가 되며, 국유지나 국유공간도 시민들의 자치적이며 협력적인 활동이 보장될 때 커먼즈가 될 수 있다.

커먼즈를 정의하는 2가지 방식2

- 커먼즈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활동을 통해 커먼즈를 규정하는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기 때문에 관계론적 접근은 곧, 실천론적 접근이기도 함. 그래서 <마그나카르타 선언>을 쓴 피터 라인보우는 “커머닝 없이 커먼즈 없다”라고 말함.
- 이러한 언급은 커먼즈가 커머닝의 실천활동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실천론적 접근만을 강조하게 되면, 관계 형성의 매개물로서 공동의 자원과 공간의 중요성 및 그 효과의 물질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음.
- 커먼즈는 “자치적인 커머닝 제도에 뿌리내린 유무형의 생산물”(오히네스 오일러), 이때 커머닝(commoning)은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동료시민들의 자발적인 자기-조직화 활동과 조정활동”을 의미(오히네스 오일러)

커먼즈를 이해하는 2가지 방식: 종합

- § 커먼즈는 1)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자원이나 공간, 2)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원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규칙과 규범), 3) 자원을 함께 이용하거나 관여하는 사람들의 집단과 그들의 활동으로 구성됨.
- §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을 커먼즈라고 규정할 수는 없음. 그것들을 연결하고 결합해 주는 활동, 즉 커먼닝이 존재해야 함. 이러한 협력적이며 자치적인 공유화 활동을 통해서 커먼즈의 요소들은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며 전체 체계 안에서 새로운 성격을 획득하게 됨.
- § 커먼즈는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커머닝) 자원과 공간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함. 이때 ‘특정한’은 곧 자치와 협력을 의미함.

순서

- § 공유... 커먼즈와 비슷하지만 다른...
- § 커먼즈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
- § 왜 커먼즈와 커먼즈라는 말이 필요한가?
- § 커먼즈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복원)할 수 있을까?
- § 커먼즈 더 읽기

커먼즈 담론 부상의 6가지 원천

- 1) 하딘의 ‘커먼즈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딜레마’ 연구: 1968년 가렛 하딘이 ‘커먼즈의 비극’ 테제를 발표한 전후로, ‘사회적 딜레마’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확산. 하딘은 지구 규모의 인구 문제를 위한 이론적 모델(은유)로서 ‘커먼즈의 비극’ 테제를 제시.
- 2)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개별 커먼즈에 관한 경험적 연구: 1970년대 로버트 네팅이 스위스의 농촌공동체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가 민주적 결정을 통해 자원의 황폐화를 방지해 왔다는 점을 밝힌 연구가 시작. 1980년대 몇몇 인류학자들은 경험 연구의 결과를 통해 ‘커먼즈의 희극’ 테제를 제시.
 - [?] 두 가지 학술적 흐름을 종합한 것이 엘리너 오스트롬의 커먼즈 연구
- 3) 지식 정보의 인클로저에 반대하는 공유운동: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의 대규모 축적과 공유가 확산됨. 이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커먼즈’론으로 발전.

커먼즈 담론 부상의 6가지 원천

- 4) 시민적 사회적 커먼즈를 통한 자유주의적 사회혁신운동: 초기의 공유경제운동을 포함하여, 공유와 나눔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 및 시장과 공존하는 제3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운동의 확산.
- 5) 전환적 사회혁신을 통해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개혁주의적 접근: 미첼 바우웬스를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자율적인 커먼즈에 기반을 둔 P2P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과 도시 영역에서 전환적 사회혁신을 달성하고 국가와 시장의 개혁(파트너국가와 도덕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 6) 저항적 반자본주의적 커먼즈 운동: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진행되는 뉴인클로저(New Enclosure)에 저항하고, 커먼즈를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사회구성 원리로 파악하는 반자본주의 운동과 결합한 급진적 커먼즈운동의 확산.

한국에서 커먼즈에 대한 요구들

현실		요구
도시	부동산 공화국의 약탈적인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환경친화적이면서 공생하는 도시적 삶에 대한 요구
농촌과 지역	고령화와 지역소멸의 압력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로컬 자원의 발전과 축적 필요
청년	자기계발을 통한 각자도생과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	지역의 필요와 결합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
마을과 공동체	원자화된 개인들의 사회	마을의 자원과 공간 활성화, 특색있는 문화를 향유하는 공동체
복지, 육아, 돌봄	국가적 해결책의 빈틈, 시장적 해결책의 불가능	지역의 조건에 맞고 공적 체계와 협력하는 복지와 돌봄
환경, 생태	인간중심적 대형개발사업의 지속, 기후위기의 심화	비인간과 공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삶의 향유

순서

- § 공유... 커먼즈와 비슷하지만 다른...
- § 커먼즈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
- § 왜 커먼즈와 커먼즈라는 말이 필요한가?
- § **커먼즈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복원)할 수 있을까?**
- § 커먼즈 더 읽기

커먼즈는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

로마법의 레스 코뮤네스(Res Communes)

- 6세기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문명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유스티아누스 법전(로마법대전 혹은 시민법대전Corpus Lu ris Civilis) 제작.
- 이 법전은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어 중세 유럽에서 보통법 혹은 공통법(Lus Commune)으로 불림.
- 로마법의 법원(법적 규범)은 시민법, 명예법, 자연법, 공법, 사법으로 구분.
- 사법에는 사물을 분류하는 여러 기준이 존재. 그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in commercio)과 거래할 수 없는 것(Res Extra commercium) 사이의 구분이 존재.

커먼즈는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

로마법의 레스 코뮌네스(Res Communes)

-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 1) 자연법에 따라 인류 모두에게 속한 것, 2) 공적인 것, 3) 특정 집단에 속한 것, 4)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 5) 신성하여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
-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매우 엄격한 것은 아니었으며, 중복으로 범주화되는 경우도 있었음.
- 로마법에서는 자연법에 따라, 즉 사물의 본성이나 사물의 내적 구조로 인해 모두에게 열려 있는 사물의 범주를 Res communes로 규정.
- 로마법의 레스 코뮌네스: "공기, 흐르는 물, 바다는 자연법에 의해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결과적으로 해안도 그렇다.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속하는 바다와는 다른 농장이나 기념물, 유적 등과 같은 것을 훼손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해안의 어디든 접근할 수 있다."
- 현대의 커먼즈 사회운동: 만인에게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원체계를 방어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그것을 레스 코뮌네스로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음.

커먼즈는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

이름	규정	사례
레스 놀리우스 Res Nullius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물(무주물) Things belonging to no one	누구도 해당 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지 않는 것: 야생동물, 잃어버린 물건, 누군가 소유를 포기한 물건 [?] 최초의 획득자가 소유
레스 코뮈네스 Res Communes	사물의 본성에 따라 만인에게 열려 있는 사물 Things open to all by their nature	사물의 본성에 따라 만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물, 사물의 '자연성'이 소유를 가로막는 것: 공기, 흐르는 물, 바다, 해안 등
레스 푸블리카에 Res Publicae	공중에게 속해 있는 사물, 그리고 법으로 공중에게 열려 있는 사물 Things belonging to the public and open to the public by operation of law	공민(publica, the public)에게 속하는 것, 공화국의 실정법에 의해 규정되어 특정 국가에 속한 시민에게 열린 사물의 범주: 도로, 항구, 항만, 다리, 흐르는 강, 강과 이어진 토지
레스 유니베르시타티스 Res Universitatis	공동집단의 자격을 지닌 (공중) 집단에게 속한 재산 Property belonging to a (public) group in its corporate capacity	단체, 기업, 대학, 공동체, 민간이나 공적 집단 등이 그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물의 범주: 지자체 소유물, 극장, 경마장, 교회, 대학, 병원, 촌락, 어장공동체 재산
레스 디비니 유리스 Res divini juris	신의 통제에 바쳐진 것 혹은 신의 통제로 보호받는 것 Things dedicated to and vested in the control of the gods	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는 사물의 범주, '신의 법'에 속한 것으로서 '신성'이 소유를 가로막는 사물: 신의 숭배와 연관된 것(신전, 예배당, 제단, 예복 등), 망자의 시신이 놓이는 곳, 불가침성을 지닌 사물(도시의 벽, 통로, 문, 보호용 절벽 등)

커먼즈는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

영국의 공동권과 대헌장

- 영국에서는 649년 법전에서 공유지에 대한 언급이 존재 (by 가이 스탠딩). 개방경작제로 농경지 관리.
- 공유지의 존재가 농업경제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첨예한 계급투쟁이 발생
- 피터 라인보우의 [마그나 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1215년 존 왕이 선포한 마그나카르타(The Magna Carta)와 1217년의 산림헌장(The Charter of the Forest)이 공유지에 대한 권리, 공동권(common rights)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결과물이었음을 보여줌.
- 피터 라인보우는 [마그나카르타 선언]에서 커먼즈를 둘러싼 중세 영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숲이 있는 목초지는 나무들이 있고 동물들을 방목하는 땅이다. 숲이 있는 공유지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이들 즉 평민(commoner)들에 의해 사용되는 곳이다. 보통 토지 자체는 영주에게 속하지만 방목은 평민에게 속하며, 나무들은 둘 중 어느 한쪽에게(즉 목재는 영주에게 속하고, 땔나무는 평민들에게) 속했다. 음 전체가 목재를 사용했다.”

커먼즈는 어떻게 존재해 왔을까?

공동권(common rights)과 대헌장

- 숲의 이용은 중세 영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평민의 공동권: 1) 목초지에서 소, 말, 양 등을 방목할 수 있는 권리, 2) 낚시나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3) 연료 이용을 목적으로 풀 등을 취할 수 있는 권리, 4) 공유지에 있는 모래, 흙 등의 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작은 나무나 나뭇가지 혹은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주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 성별화된 이용: 농경은 주로 남성의 몫, 공유지에서의 목축이나 댄감 이용 등은 주로 여성의 몫.

투쟁과 갈등의 대상으로서 커먼즈

- 대헌장에는 커먼즈의 권리로서 이웃공동체의 원칙, 생계자금의 원칙, 자유로운 여행의 원칙, 반종회의 원칙, 배상의 원칙 등이 명기되었다.
- 그러나 커먼즈의 권리는 대헌장, 산림헌장의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235년 머틴 법령(Statute of Merton), 1285년 웨스트민스터 법령(Statute of Westminster)은 장원 내 인클로저를 허용하는 법으로 커먼즈를 둘러싼 계급투쟁은 점차 격화되었다. 1552년 독일의 농민전쟁, 1549년 로버트 킷이 이끈 농민전쟁, 1607년 미들랜드 반란 등은 커먼즈의 인클로저를 둘러싼 대표적인 계급투쟁.

한국의 전통적 커먼즈: 산림천택과 송계



조선의 자연(산림)관리 이념

- 조선의 건국이념: 山林川澤 與民共之
- 山場水梁 一國人民公利地 山林川澤 與民公利地 산림과 수리는 인민들의 공리지로 하고, 산림과 강 호수는 백성들의 공리지로 하라.
- 산림정책의 근본: 公利地勿令私占 산림을 비롯한 공리지의 사점을 금지
- 경국대전 형전(刑典): 私占柴草場者杖八十

양난 이후의 변화

-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사회변동 속에서 왕족이나 양반에 의한 공리지 사점이 확대
- 이러한 사회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민초들의 자구책으로서 송계(금송계)의 등장. 송계는 관으로부터 산림을 입안받거나 공동으로 매입하여 배타적인 사용권을 확보함으로써 화목과 비료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한 제도
- 국가도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해 장려.

산림천택을 둘러싼 투쟁과 갈등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3권

헌부가 아뢰기를,

“예전에는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 금법이 없이 백성들과 함께 이용하였으나, 근년 이래 내수사(內需司)와 여러 궁가(宮家) 및 사대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불법으로 점유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인이 있는 전지를 공공연히 빼앗기까지 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柴場)·제언(堤堰)·해택(海澤)·어전(漁箭) 중 입안 절수(立案折受)하는 것은 일체 금단하여 불법으로 점유하는 폐단을 개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산림과 천택을 백성이 함께 이용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 시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였다.

한국의 전통적 커먼즈: 송계(松契)

송계의 중요성

- 1904년 계룡산 국사봉 주변마을인 향한리 주민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글
- 송계 커먼즈의 유지가 곧 생존권, 생계권과 연결된 문제임이 드러남.
- “식한면 향한, 운전, 외송, 용계, 중평, 운동 주민들은 삼가 백배하고 성주 합하께 글을 올립니다. 엇드려 생각하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곧 계룡산 남쪽 기슭의 향적산 아래입니다. 여섯 마을 주민들이 이 산을 밑천으로 생활하니 풀이며 땔나무며 울타리와 산전 개간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는 즉 가히 목숨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계를 만들어서 금양하여 불편함이 없이 생활의 자산으로 삼은 것이 이미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근대화와 송계의 변화

근대화와 송계의 해체

- 화석연료의 도입 등 연료체계의 변화에 따른 송계의 전통적 기능의 상실: 난방과 조리를 위한 땔감, 퇴비, 목재 제공 기능 상실 [?] 재정 고갈
- 부동산 가격 상승 [?] 세금 지출 증대
- 개발사업의 확대와 개발주의적 욕망의 고조에 따라 마을숲을 부동산으로 개발하거나 매각.
- 송계 처분과 매각대금 분배를 둘러싼 갈등
- 한국전쟁 등 정치적 격변에 의해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송계 등 전통적 커먼즈가 파괴됨.

송계의 대응과 의미

- 근대화의 진전과 현대사회의 형성에 따른 경계의 확대와 공동체의 재구성: 외부인의 영입, 법인화, 협동조합 조직
- 마을의 문화복지사업으로 역할의 확대
- 송계의 현대적 의미: 1) 마을-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중요(공동체 자산의 중요성), 2) 인간-자연 관계의 지속가능성 구축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 3) 숲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용관계 수립의 가능성?

커먼즈의 두 차원과 커먼즈의 정치

우리의 것		모두의 것
기본 원리	Communal 자치(참여, 공공협력), 협력(돌봄, 재생산)	Public 보편적 권리, 근본적인 사회계약
사례	송계, 제주의 공동목장과 어장, 일본의 입회, 유럽의 커먼즈 목초지	15세기 조선의山林川澤 與民共之, 13세기 영국의 산림헌장, 로마법의 res communes, res publicae, res universitatis, res divini juris
제도의 성격	공동체의 자치 규약 경계의 확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분배	커먼즈의 법, 통치이념 비배제적,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
자원의 성격	구체적 대상, 경계를 가진 한정된 자원과 공간	사물의 추상적 범주로서 모두의 것 모두에게 보장해야 할 것: 생계자원, 필수재
주체의 성격	자원과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와 욕구 속에서 관계를 맺는 주체들의 집합(=공동체?)	모든 인류, 인민, 평민 등 추상적 집합적 존재
우리/모두	우리=경계를 만드는 공동체 ‘바깥’을 구분하는 주체	모두=‘바깥’을 포함하는 주체 경계의 횡단을 통해 구성되는 공동체
한계 지점	경계 설정이 갖는 차별, 배제, 독점의 가능성 사유화의 압력에 취약	개방성이 갖는 비협력의 가능성 ‘모두’는 인간들만의 공동체인가?

커먼즈론의 과제1: 모두의 것을 규정하는 커먼즈의 법

- § 공동부예의 기여와 확장이 아니라 지대추구행위와 유사해지는 공동체적 커먼즈의 문제
- § 지역 수준에서 지속적인 공동부에 대한 강탈(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 §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집합적 문제로 제기할 필요성. 공동부 개념의 유용성.
- § 우리의 것에서 공동부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것에서 커먼즈의 생태계’로 확장하는 정치와 운동이 필요. 이를 통해 경계의 상대화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구축.
- § 다양한 층위에서 공동부를 설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서, 커먼즈론의 관점에서는 모두의 것을 규정해 온 커먼즈의 법, 근본적 사회계약을 재창안하는 커먼즈의 정치가 필요.
- § 그러나 한국헌법의 제헌 과정에서 공동(권)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박태현 이병천, 2017). 커먼즈, 공동의 이념에 근거한 헌법 다시쓰기가 가능한가?
- § 커먼즈로서의 공동부, 특히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기술관료적 통치를 비판하고 상대화할 필요(경의선공공유지의 경험).
- § 우리-모두의 모순을 역동성으로 삼는 커먼즈의 정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커먼즈론의 과제2: 경계와 자격의 문제

- | | |
|---|---|
| § 공동체에 기반을 둔 커먼즈, 공동자원 논의에는 마을 사람들의 자격의 문제가 존재: 자격의 문제는 공동자원 운영에의 참여, 이용 및 수익 배분에서 경계를 설정 | § 커먼즈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필요: 모두의 것의 이념을 상실할 경우, 사유화에 접근하며 지대추구행위로 변형될 우려. |
| § 기존 커먼즈론에서는 이러한 커먼즈의 특성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해움. | § 경의선공유지운동에 대한 반대 여론: "너희들 누구 허락 받고 여기 와서 ..." |
| §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커먼즈를 우리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 | § 커먼즈의 정치를 통한 비판의 가능성: "인간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도구이자 공동체의 삶에 대한 참여의 가시적 표현으로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리와 재생에의 개입은 어떠한 정당화의 필요 없이(without the necessity of any title of legitimization)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볼로냐의 커먼즈 규약 제4조) |

커먼즈의 정치를 통해 커먼즈의 생태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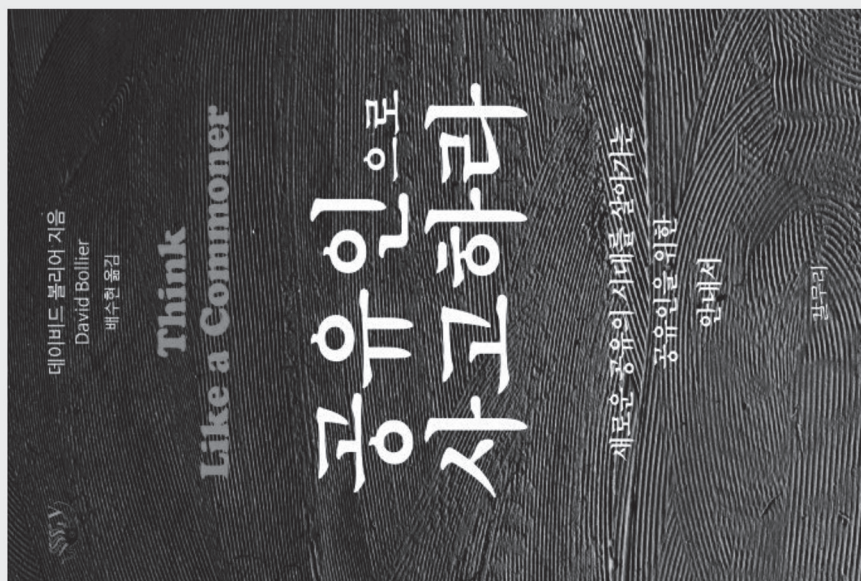
- § ‘커먼즈의 정치’는 커먼즈를 둘러싼 집합적 의사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
- § 커먼즈의 정치론은 오스트롬학파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로 공동체적 커먼즈(우리의 것)에 집중되어 온 측면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확장된 커먼즈들은 모두의 것의 성격을 띠는 점을 강조. 양자를 동시에 사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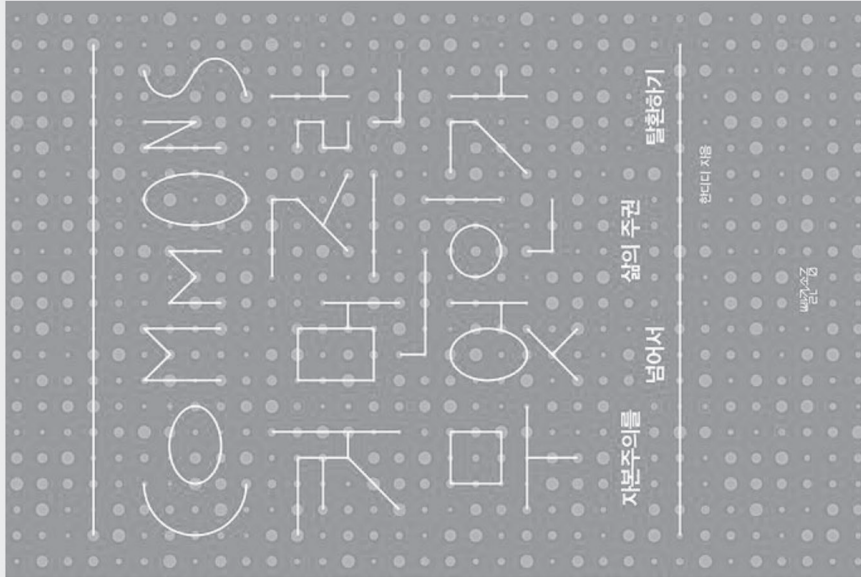
- § 커먼즈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것에 대한 강조는 사유화의 압력에 취약하며, 모두의 것에 대한 강조는 기술관료적 관리로 흐를 가능성을 안고 있음. 양 방향을 위험은 커먼즈의 정치를 통해 견제될 수 있음.
- § ‘커먼즈의 정치’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진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차원을 회복하고자 하며(필수재에 대한 보편적 접근), 공동체적 경계를 넘어서서 민주적이면서도 인간-비인간 모두가 공생하는(경제의 재구성)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순서

- § 공유... 커먼즈와 비슷하지만 다른...
- § 커먼즈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
- § 왜 커먼즈와 커먼즈라는 말이 필요한가?
- § 커먼즈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복원)할 수 있을까?
- § 커먼즈 더 읽기







GOVERNING
THE COMMONS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공유비극을
넘어

50여년 전, 뉴저지 근교의 토지 소유자 공동체는 자원의 남용을 막고 공동 수확을 얻기 위해 지역
의 공동체에서 어떤 형태의 규제를 통해 공유 자원을 관리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
했다. 공동체 자원관리의 실험시도를 경험하고 토지유지권, 공유지, 공유지 소유권을 둘러싼
영리나 오소비를 지음 | 홍준근·안도경 옮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벨상이 선택한 대안:
수십 년에 걸친 경험적·실증적 연구와 최신 개념이론을 응용,
강제력의 최대 한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선 새기의 화제작

2009
노벨경제학상
수상작

지식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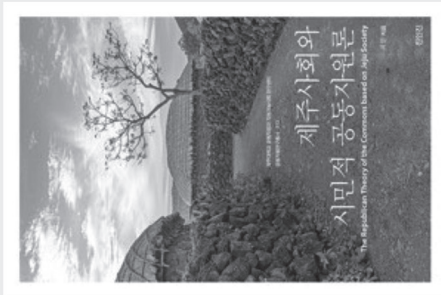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을 나누다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From Theory to Practice

다저팀 시대, 지식 공유자들의 모돈것
노벨경제학상(2009)
최초 여성 수상자의 제언

영리나 오소비를, 상의 페스 권자
김민규, 송희영 역

타인복스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thin black line that starts from the left edge of the page, extends diagonally upwards and to the right, passing through a dark gray circle. The circle is positioned to the left of the '2강' text.

2강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김만권 번역, 책세상, 2025

강사 : 김만권(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민주주의 시대가 온다

김만권 자유의 계보학 2강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 19세기 영국의 대표적 철학자로 1806년 스코틀랜드 철학자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태어남
-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 아버지 친구였던 벤담과 리카도의 영향
- <정치경제학의 원리>, <자유론>, <대의정부에 대한 고찰>, <공리주의>, <여성의 종속>, <사회주의론>

자유론의 에피그라프

- 우리는 최대한 다양하게 인간 발전을 일굴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요성은 절대적이며 본질적이다. 이 책이 펼치는 모든 주장은 이 원칙에 수렴한다.
- 빌헬름 폰 훔볼트 Wilhelm von Humboldt, <<정부의 영역과 의무 Sphere and Duties of Government>>에서

<자유론>의 1장 머리말이 드러내는 목적

- “이 책의 주제는 흔히 말하는 ‘자유 의지’ Liberty of the Will가 아닙니다. 자유 의지는 철학적 필연성과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이 책이 다루는 주제는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Civil, or Social Liberty이다.
- 즉 개인을 상대로 사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살펴본다.”

바뀐 시대의 새로운 조건

- “일반적으로, 지금껏 사람들이 이 질문을 심각하게 언급하거나 논의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문제가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까닭에, 알고 보면 오늘날 실천적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곧 다가올 미래에 핵심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이 책이 다루는 질문은 전혀 새롭지 않다. 어떻게 보면, 훨씬 오래 전부터 인류를 분열시켜 온 문제다. 하지만 인류가 더 나은 문명을 일구며 진보의 단계로 들어섰고, 이런 새로운 조건 속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다르면서도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민이 주권자인 시대

- 1859년, 존 스튜어트 밀은 훗날 자유주의의 위대한 고전으로 길이 남을 『자유론』(1859)을 출간.
- 밀은 이 책에서 인민(people)이 주권자가 된 새로운 세계,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고민을 내비치고 있음

19세기 이전까지 자유의 의미

- 밀은 『자유론』에서 근대가 시작된 이후 19세기 이전까지 강력한 권력자(들)에 맞서 그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두고 “자유”(liberty)라고 불렀다고 말함.

19세기 이전 권력 제한의 두 가지 방식¹

- 첫 번째는 정치적 자유 혹은 권리의 성취이다.
- 이 방식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저항할 권리를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표적인 사례가 존 로크로, 위임 받은 권력이 자유를 침해할 경우, 자유를 침해당한 보통 사람들이 그 권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마디로, 이 정치적 자유는 혁명의 권리로도 이어짐

19세기 이전 권력 제한의 두 가지 방식2

- 두 번째는 입헌적 제한으로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아예 제한을 두는 일.
-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랑스의 법학자 샤를 드 몽테스키외(1689-1755)의 『법의 정신』(1748)
-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가지는 확신에서 생겨나는 정신의 평온이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권력분립)

새로운 시대의 도래

- 밀은 또 다른 변화가 밀려오고 있음을 그러나 “인간사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로 표현.
- 바로 민주주의 시대, 인민이 정부를 세우는 시대가 도래한 것

인민의 시대

- “이제 새로운 요구는 이렇게 말했다. 지배자가 인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들의 이익과 의지가 국가의 이익과 의지가 되어야 했다. 그럴 수 있다면 국가를 그 자체의 의지에 반해 가며 보호할 필요는 없었다. 국가가 전제의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사라졌다. 통치자들이 효과적으로 인민에게 책임을 진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 인민이 즉시 통치자들을 해임할 수 있다면, 인민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있다면, 통치자들을 신뢰할 만했다.”

민주주의 시대의 문제,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립

- 민주주의 시대에 자유의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는데, 밀의 말로 요약하자면 다수파와 소수파의 대립에 있음
- 민주주의는 인민의 자치를 의미하지만, 현실에서 자치는 모두가 모두를 위해 통치하는 일이 아니며, 현실에서는 좀 더 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 그렇지 않은 세력을 통치하는 일에 불과
- 인민 의지의 실체는 “다수파의 의지”, 혹은 “성공적으로 다수파가 된 이들의 의지”

여전히 필요한 권력 남용에 대한 제한

- “따라서, 인민 중 다수파가 나머지를 억압하려고 들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는 지배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대비만큼이나 필요하다.
- 그러므로 정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에 제한을 두는 일의 중요성은 결코 폄하할 수 없다.”

김만권 자유의 계보학 2강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¹

- 하나는 제도적 횡포로서 공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짐.
- 의회의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을 위협할 수 있음
- 하지만 당시 영국에선 이런 위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던 듯한데, 『자유론』에서 밀은 영국에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적인 행동에 개입하는 일을 상당히 경계**”한다고 밝힘. (프랑스와의 차이)
- 그 이유는 “정부를 공중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존재로 보는 관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2

- 다수가 횡포를 부리는 또 다른 방법은 사회적 횡포로서 지배적 여론과 감정을 통해 이뤄짐.
- 여론과 감정의 횡포란, “사회가 시민적 처벌 이외의 수단으로 자체의 사상과 관행을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동 규범으로 강요하는 경향” .
- 밀은 사회적 여론과 감정이 개인의 삶의 방식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일은 독재자에 맞서 억압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일만큼이나 중요

여론 제약의 어려움

- 하지만 그 한계를 찾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데, 법이 규정하지 않는 영역, 달리 말해 관습이 힘을 발휘하는 영역에선 더욱 그러함.
- 무엇보다 여론이란 “모든 사람이 나와 내가 공감하는 이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각자의 마음에 있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더욱 제어하기 어려움

믿의 여론에 대한 비판

- “여론이 각자의 마음, 개인의 선호에 불과하다면,
- 때로 그 선호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 심지어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 믿음이나 증오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김만권 자유의 계보학 2강

믿의 여론에 대한 비판

- 그 종교적 믿음마저 스스로 갖지 못하고 타인이 알려주는 교리 해석에 기댄 것이 라면,
- 좀 더 많은 사람이 어떤 가치나 행동 혹은 규범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삶의 가치나 방식에 관여해도 되는 것일까?”

여론이 더 무섭다

- 밀은 다수가 권력을 갖는 시대에, 다수가 개인의 삶에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 특히 밀의 관심사는 공권력을 통한 제도적 간섭보다는 여론을 통한 사회적 간섭.
- 공권력은 법을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여론은 그럴 수 없기 때문

대응1: 토론의 자유와 오류가능성의 인정 (극단주의의 경계)

- 토론의 자유의 자유를 장려하는 것, 그 가운데 누구나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야말로 여론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
- ‘오류가능성’(fallibility)의 인정은 토론을 이끄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임을 증명하는 조건.
-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토론은 무의미한데, 자기 입장에 오류가 없다면 논의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문제는 언제나 상대방에 있기 때문.

20세기 자유주의까지!

- 무오류의 인간이 상대방을 교정하는 방법은 자신이 내세운 무오류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하는 길뿐.
- “인류가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다.”
- 이렇듯 밀이 강조한 ‘오류가능성’의 인정은 20세기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버트란트 러셀, 칼 포퍼 등이 이어받게 되는데, 이들은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극단주의와 전체주의를 만들어낸다고 비판

대응2: 개별성의 인정

- 밀이 제시한 자유의 두 번째 영역은 취향과 추구의 자유.
- “우리 삶의 계획을 우리 자신의 개성에 맞게 설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로 “개별성”(individuality)의 자유라고도 부름
- 이런 개별성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 밀은 빌헬름 폰 훔볼트(Friedrich Wilhelm von Humboldt, 1767-1835)가 「국가 행위의 한계」(*Ideen zu einem Versuch die Grenzen der Wirksamkeit des Staats zu bestimmen*, 1851)라는 논문에 쓴 한 구절을 인용

인간이 노력해야 할 목표

-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목표,
특히 동료 인간(fellow-men)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주목해야 할 목표는
• 개별의 힘과 능력의 발전이다.”

독창성의 토대로서 자유

- 밀은 개인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때 독창성(originality)이 발휘되며, 이런 독창성은 오로지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이 동시에 허용될 때야 솟아날 수 있다고 주장.
- 무엇보다 개별성을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말로 뛰어난 사람들, 밀의 직접적 표현을 빌자면 “천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으로, “천재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관습에 젖은 사람들의 문제

- 관습에 젖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독창성을 억압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 독창성이 왜 유용한지 느끼지도 못하고,
- 독창성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함

삶의 환경의 동질화

- 더 심각한 문제는 삶의 환경이 동질화되어가는 데 있음.
- 과거에는 계급, 지역, 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고 할 정도 삶의 환경이 달랐음.
-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똑같은 것들을 입고, 똑같은 것들을 듣고, 똑같은 것들을 보고, 똑같은 장소를 방문하며, 똑같은 목표를 향해 희망과 두려움을 품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이를 주장할 똑같은 수단을 지니고 있다.”
- 모든 것이 평준화되면서 특권을 누리던 이들조차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의 시대가 도래.

우리 자신과 닮아야 한다는 요구의 횡포

- 만약, 다수의 여론이 개별성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수의 여론이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과 닮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밑은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과 닮아야 한다는 요구는 그것에 먹이를 주는 만큼 커진다”며, 삶의 조건이 동질화될수록 이런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

삶의 조건 변화가 만들어 낸 고민

- 민주주의가 삶의 조건의 평등이 만들어낸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 삶의 우려는 결국 민주주의라는 삶의 조건에서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왜 민주적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나

- 종교가 공적 논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 공적 논의는 의미가 없어
지는데,
- 이미 대부분의 공적 사안에 대해 결론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고, 다른
이들을 자기 종교의 교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옳기 때
문

대응3: 결사의 자유

- 마지막으로 밀이 (아주 짧게 몇 줄의 설명으로 제시하는) 세 번째 자유의 영역은 개인들 간 결사의 자유.
- 유사한 의견을 가진 이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목적이라도 이를 위해 뭉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만 하는데,
- 이런 결사는 자발적으로, 기만 없이 참여한 성인들로 이루어짐

이기적 무관심이 아니다

- 더하여 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이기적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
- 우리 삶에는 자신을 돌보는 미덕과 사회를 돌보는 미덕 모두가 필요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도 있다

- 예를 들어, “잔인한 성향, 악의와 심술궂음, 모든 열정 중 가장 반사회적이고 혐오스러운 질투, 위선과 불성실,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거나 자극에 비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 자신의 몫 이상을 차지하려는 욕심(그리스인들이 강조하는 탐욕[pleonexia]), 타인을 낮춰보는 데서 만족을 얻는 교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논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론짓는 이기주의”와 같은 도덕적 악의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며 때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도널드 트럼프 !)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도 있다

- 하지만 이런 악의를 품지 않은 행위라면, 성숙한 나이에 이른 이들이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간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밀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민주적인 시대에 공적 토론 대신 사회적 여론을 통해 이들을 억압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만 하는 일이다.’

시대적 배경

-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였던 영국은, 밀의 시대에 ‘세계의 공장’이 되어 있었으며, 이는 두 가지 상황을 만들었음.
- 우선, 산업화의 주역인 노동계급이 부상하고 있었는데, 이는 더 크고 강력한 민주주의의 도래를 의미.
- 다른 하나는 이 번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했음.

민주주의의 부상과 독창적 개인을 위한 보호

- 밀은 개인의 독창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
- 그렇기에 ‘개별성’을 억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았음
- 밀은 영국에서 노동계급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상황에서 개별성의 억압이 제도적인 차원보다는 여론으로 인해 생겨난다고 보았음.
- 밀이 제도적 다수의 횡포보다는 ‘여론의 횡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

여전한 질문

- 다수가 자발적으로 독재를 선택할 수도 있는 민주주의 시대에 자유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